

2014년 5월 12일 새벽 1시 30분

새벽1시반부터 오빠와의 추억을 정리하기위해 사진첩을 열었다.

하나하나 너무 추억이 많아서 오빠한테 들었던 따뜻한 말들이 캡처된 파일들을 봤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오빠한테 투정쟁이가 됐을까..

왜 나는 오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걸까

오빠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결국 나의 선택이었다..

오빠를 정리하기위해.

다이어리를 쓴다.

내년에 나는 어떻게 되어있을지, 어떤사람을 만나고있을지 궁금하기도하고

기대된다..

나한테 마음껏사랑을 준사람

사랑이 뭔지 알게해준사람

딴지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미치는데 어떤건지 알게해준사람  
나에게 수없이 많은 추억을 주기위해서 노력한사람  
너무 아이같아서 날 너무힘들게한사람  
여자맘을 모르는사람  
그럼에도 장난스런 웃음앞에선 화도 누그러지게해준사람  
바보같지만 그게 싫지않은사람  
많이 고맙고, 많이 미운사람  
잊을수있다면 빨리잊고싶은사람  
날 평생 잊지않아줬으면 싶은사람

참 많이 사랑하고 고맙고 보고싶다 박준석.  
너에게 많이 실망했지만 그것마저 기다려져..  
내상처도 오빠의 상처도 금새 아물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땐 더욱 성숙해졌기를..  
사랑한다 정말.



첫여행.  
강화도



내가 사랑하는 너의 모습.

